

얼음 깨기**병자의 아버지****교회행사**

전쟁 중 한 젊은 군인이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이별해야 했던 가족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커지만 그는 얼굴이 상해 가족 앞에 나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에게 아버지가 먼저 찾아옵니다. 병상으로 와서 그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여전히 나의 기쁨이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나눔]

- 나에게는 어떤 연약함이 있나요?
- 그럼에도 나를 찾아오시고 구원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나눠봅시다.

9월

5일	향기로운 금요일 시작
7일	진공첫 5기 시작
21일	어와나 2학기 개강 풍삶기 2기 시작

10월

6~9일	추석 연휴
12~15일	기을 사경회
18일	더비기닝 선교학교 개강
26일	종교 개혁 주일 진공첫 5기 종강

경배 찬양**너의 하나님 여호와가****선교****[유성재 선교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기뻐하시리라**

일본

1. 협력하는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2. 전도사역(오픈카페, 한글카페)을 주님의 지혜로 섭기며 미신자분들이 복음에 반응하도록.
3. 여성사역을 축복하시고 금요모임 말씀준비와 여성리더들이 말씀으로 서기도록.
4. 사론 중보기도모임과 영성지도를 주님의 지혜로 잘 감당하도록.
5.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건강관리 잘하도록.

소식**1. 풍삶초 이끄미 세미나**

진공첫 1~4기까지 수료한 성도들 가운데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이끄미 교육을 원하시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3기 이끄미 세미나를 주일 오후 5시, 노아의 방주에서 2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신청기간 : 9/7 ~ 9/17, 문의 및 신청 : 지역 담당 교역자

2. 결혼 예비 학교 홈커밍데이

결혼예비 학교 수료자들을 위한 홈커밍데이를 진행합니다.

대상 : 결혼예비학교 1~4기 참석한 모든 분, 일시 : 9/20 오후2시~8시,

장소 : 1층 노아의 방주, 문의 : 천현수 목사(010-8664-5245)

한문장 큰 울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필요한 은혜도 함께 준비해 두신다”

-디트리히 본회퍼 (Dietrich Bonhoeffer)-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 스바냐 3장 17절 –**

스바냐가 살던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의식이 살아 있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지도자들은 권력을 남용했으며, 백성들은 정의와 공의를 잊어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무서운 경고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 새로운 회복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날"은 심판만이 아니라, 구원과 임재가 함께 하는 날이었습니다.

1.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날은 두려운 심판의 날이라고 선포합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진멸하겠디"라는 강한 표현으로 죄악을 향한 그의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어떤 집단이나 일부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임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2장에 가면, 심판은 유다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앗수르 등 주변 모든 열방까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자와 나라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3장 1-8절에서는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지도자들은 사자를 닮아 포악했고, 재판관들은 늑대처럼 약한 자들을 삼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심과 권력만을 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의 심판은 과거 유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을 향해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나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2. 여호와의 날은 구원과 회복의 날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십니다(9절). 과거에는 우상을 찬양하며 자기 힘을 의지하던 자들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그들의 입술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에서 나온 고백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남은 자의 수치를 제거해 주십니다(11절). 그동안 믿음을 지킨 자들은 세상 앞에서 약해 보이고, 조롱받고, 억울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벗겨 주시고, 믿음의 길이 옳았음을 드러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남기십니다(12-13절). 교만한 자는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기초가 됩니다. 그들은 거짓과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십니다.

[나눔]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를 나눠봅시다.

3.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날입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이 단순히 심판과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의 백성이 가운데 임재하시는 날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 전체에서도 가장 따뜻하고 은혜로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두려움으로 다스리지 않으시고, 사랑과 기쁨으로 품으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보며 웃음을 터뜨리듯,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므로 백성은 두려움 대신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14-16절).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노래하는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임재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단순한 심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의 회복의 날입니다. 결국 그날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이 완성되는 날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나눔]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